

“생성형 AI, 빠르게 성장... 新시장 신속 진입 고려해야”

기조강연

김득중 NIPA 부원장

AI 발전·이용자 확장 속도 빨라져 기업 역량 키워 기술격차 상쇄해야

“가장 많이 활용한 생성형 AI 앱을 조사했더니, 단 4개월 만에 40%가 새로운 앱으로 바뀌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니다.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김득중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부원장이 20일 (메트로경제)가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주최한 ‘2024 뉴테크놀로지 포럼’에 참석해 기조강연에 나섰다. 이날 김 부원장은 ‘생성형 AI 시대 강한 기업으로 성장하는 길’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강연은 현 생성형 AI 생태계에 관한 개괄과 기업이 생성형 AI 시대를 맞은 현재 목표할 점 순으로 진행했다. 먼저 김 부원장은 최근 AI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변화에 관해 설명하면서 과거와



김득중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메트로미디어 주최로 열린 '2024 뉴테크놀로지 포럼'에 참석해 기조강연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다른 점으로 ▲발전속도 ▲이용자 두 가지를 들었다. 지난 2020년 이전 학계는 인간과 같은 수준으로 모든 조건에 초월해 연산과 학습이 가능한 범용인공지능(AGI)이 출현하기까지 약 80년 가량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챗GPT가 등장한 2021년 11월, AGI 출현 예상 시기는 20년 후 수준까지 당

겨졌고 지난 7월 오픈AI는 오는 10년 내 출현할 전망이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부원장은 “과거와 현재 또 달라진 점은 바로 사용자들의 특성”이라며 “과거 AI, 딥러닝, 머신러닝 등은 모두 전문가의 일로 일반인이 활용하는 능력이 아니었으나 현재는 일반인 까지도 모두 생성형 AI를 사용하고 있

다”고 짚었다.

이어 “점차 빨라지는 AI 발전 속도와 이용자 확장 속도를 고려한다면 AI에서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대형 벤처투자사 앤더슨호로위츠의 조사결과를 유의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김 부원장은 “앤더슨 호로위츠가 매달 조사해 발표하는 월별 생성형 AI 웹/앱 순위를 보면 단기간에 급속히 새로운 앱이 치고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2024년 1월 기준, 4개월 전인 2023년 9월과 비교했을 때 1위부터 50위 중 40%가 새로운 기업으로 교체됐다”고 설명했다. 아직 생성형 AI와 관련한 사업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단계라는 설명이다.

김 부원장은 생성형 AI 시대 강한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업의 AI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에 따르면 빠르게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맞춰 생성형 AI 경영 패러다임을

셋팅하고 오픈소스를 통해 활발히 공유되는 기술을 억함으로써 자본과 기술 격차가 심화 되는 상황을 상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새로운 시장 성장 상황을 살펴 신규 시장으로 신속한 진입도 고려해야 한다.

그는 핵심역량의 변화 또한 이뤄질 것으로 예고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생성형 AI 조합·활용 역량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역량, 빠른 최신 AI기술 및 트렌드 습득 역량 등이 중요한 역량으로 떠오를 것”이라며 “여전히 자기 개발, 창의적인 아이디어, 고객 이해, 비즈니스도메인 지식은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테스트 코드 작성이나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 지식, 산업 표준에 대한 지식 등은 대체 가능한 역량으로 덜 중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생성형 AI 시장에서 주목 받는 새로운 사업 기회에 대한 소개도 진행했다. 김 부원장은 ▲온디바이스AI ▲AI 에이전트 ▲AI Things 등을 꼽았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2~3년 내 AI 경험하는 공간 컴퓨팅 시대 열릴 것”

강연

김현배 딥파인 대표

확장현실, 디지털-현실 융합해 영항 생성형 AI, XR 콘텐츠 제작 핵심기술

“확장현실(XR) 기술은 단순히 정보를 처리하는 수준을 넘어, 현실과 가상을 연결해 새로운 공간 컴퓨팅 시대를 열 것입니다”

김현배 딥파인 대표는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가 지난 20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주최한 ‘2024 뉴테크놀로지 포럼’에서 XR 공간 컴퓨팅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조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대표는 ‘차세대 미래 기술 XR 공간 컴퓨팅’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김 대표는 XR 기술이 산업 전반에



김현배 딥파인 대표가 20일 '2024 뉴테크놀로지 포럼'에 참석해 강연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실질적인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 컴퓨팅의 발전사를 돌아보며 “XR 기술은 디지털과 현실을 융합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딥파인의 핵심 솔루션인 ‘디에스씨(DSC)’와 ‘디에이오(DAO)’를 통해 XR 기술의 다양한 산

업군 적용 사례를 소개했다.

DSC는 전문 장비 없이도 누구나 모바일 기기에 부착된 카메라, 센서 등을 통해 주변 환경을 디지털 공간으로 구축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박물관에서는 유물이나 전시품을 3D로 스캔·복원하거나 역사 유적지에서는 증강현실(AR) 기반 인터랙티브 투어를 제공할 수 있다.

김 대표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이 XR 콘텐츠 제작의 핵심 기술로 자리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텍스트나 이미지 입력만으로 고품질 3D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대표는 “앞으로 2~3년 후에는 누구나 AI 환경을 경험하는 공간 컴퓨팅 시대가 열릴 것”이라며 XR 기술의 밝은 미래를 전망했다. /이혜민 기자 hyem@



하현석 큐빅 CTO가 20일 '2024 뉴테크놀로지 포럼'에 참석해 강연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합성데이터로 저작권 등 법적제약 극복”

강연

하현석 큐빅 CTO

합성데이터, AI 시대 ‘합성 다이아몬드’ 데이터 수집비용 절감·편향성 해결

“합성 다이아몬드로 불리는 합성 다이아몬드가 등장한 후 가격 접근성도 변했지만 환경과 윤리적 문제들이 함께 해결됐습니다. AI시대, 합성 데이터는 바로 합성 다이아몬드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현석 큐빅 CTO가 20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주최 ‘2024 뉴테크놀로지 포럼-초현실 사회로: AGI가 재편하는 미래 생태계’에 참석해 ‘AI 혁신을 위한 미래데이터: 합성데이터 소개’ 강연을 진행했다.

합성 데이터(Synthetic Data)란 실제 데이터와 유사한 통계적 특성을 가지지만 개인정보 등 민감 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가상 데이터를 뜻한다. 개인정보와 저작권 등 법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데이터 수집 비용을 절감하고 편향성도 함께 해결할 수 있어 AI 모델 학습을 위한 최적의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 CTO는 “AI는 방대한 데이터 셋 학습이 필수적이지만, 이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에는 다양한 제약이 있다”며

“현재 오픈AI를 비롯해 주요 AI 기업들은 다양한 주체들로부터 저작권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바로 유사한 통계적 특성을 가지되 개인정보나 민감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가상 데이터인 합성데이터”라며 “가트너는 2030년까지 합성 데이터가 원본 데이터보다 더 많이 활용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합성데이터 또한 일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허 CTO에 따르면 원본 데이터를 너무 충실히 모방하면, 합성데이터만으로도 원본 데이터의 민감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차등 정보 보호(Differential Privacy) 기술이 도입됐는데, 이는 데이터 학습 시 노이즈를 추가해 원본 데이터의 샘플 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방식이다. 구글, 애플 등 글로벌 IT 기업들은 이미 이 기술을 고객 데이터 보호에 활용하고 있다.

허 CTO는 “미래의 데이터 산업은 단순히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합성 데이터 기술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이제는 다이아몬드와 데이터가 합성 기술로 재탄생하며, 우리의 삶과 산업에 혁신을 가져올 준비를 마쳤다”고 마무리 지었다. /김서현 기자

“AI, 어디까지나 조력자일 뿐... 사람과 동등대우는 안 돼”

강연

이근우 변호사

장점 분명하지만 부작용 등 논의의 필요 특히 노동시장 관련 대책 마련해야

“인공지능(AI)은 어디까지나 조력자일 뿐, 사람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근우 화우 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는 지난 20일 서울 중구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열린 ‘2024 뉴테크놀로지포럼’에서 AI와 인간의 정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AI를 활용의 장점이 분명하지만 동시에 부작용과 문제점도 적지 않다고 이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근우 화우 법무법인 AI센터장이 20일 '2024 뉴테크놀로지 포럼'에 참석해 강연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이 변호사는 ‘AI와 같이 살아야 하는 시대: 활용과 노동시장의 문제’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그는 AI 기술이 확산되는 시대에 특히 주목해야 할 점으로 AI활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노동 시장의 문제를 꼽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AI 도입으로 인해 기존의 안정적으로 직업을 이루고 있던 직종들이 통째로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며 “특히 예술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생산형 AI가 예술 작품을 학습에 사용해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AI가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생산성 향상이 경제 전반에 미친다고 하더라도 특정 인력을 대체하는 방식은 결과적으로 일부 근로자 집단에 부담을 집중시킬 수 있다”며 “직업 재설계와 교육 훈련 체계의 정비가 더욱 시급하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